

오늘 새롭게 목상이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첫 기적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카나에서 혼인잔치는 약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천상잔치의 예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성체송에서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라고,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과연 잔치에서의 술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정결에 쓰인 두세 동이의 독은 현재 우리 미사 성제 안에서 사제가 사용하는 성작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발전에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피와 땀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성혈을 봉헌하기 전에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예물 준비 전례를 합니다.
성찬전례 시작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카나의 첫 기적은 기적의 순번의 첫 번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는 측면보다~ 깊이 생각해 보면, 전례 안에서 성찬 전례 시작하는 예물준비 보면,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회중은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예물 준비를...
공동체가 이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예증을 하죠..
이곳 수녀원에서는 총원장수녀님이나 본원장수녀님이나 아니면, 제일 연하자인 지원자가 봉헌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천상잔치의 첫째와 맞이 대표와 성물을 받는 것이지요.
성모님께서 너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일꾼들의 예식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데~ 전례문헌에서는 사제가 성혈이 될 제주를 어떻게 하나면은, 물과 포도주를 섞죠..
대부분이 포도주이고, 물을 조금 섞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 물과 술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는 다른 말로~
참여하여라...
순명만큼 완벽한 참여가 없다.
당신께서 생명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날기까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세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실 자격이 있고, 내용상으로 그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에 쓰이는 물동이...
그냥 밥 먹을 때 쓰는 물동이가 아니고~
성작도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하는 구원사업...
정화하는 것이지요.
죄를 속죄하는 정결 내에 독이 어떤 ... 미사 안에서는 성작이 되는것이지요..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이 심부름꾼들이 자신이 정결된 독의 물을 채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중요치 않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관목상대할 만한 변화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에 관심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준비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미사 할 때 예물 준비...
“온 누리의 주 찬미~~~ “ 이것을 봉헌이라고 하는데~ 절대 봉헌이 아니죠.
봉헌하기 위한 준비예식인데,
대부분 미사에 있어서 예물 준비의 영성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월 피정하시는데, 피정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는 완성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된 물동이가 미사에서는 성작이 되겠고.
성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결과로서, 성혈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영성체를 하면서 주님 저희가 카나의 혼인잔치가 천상양식의 첫 번째 예표가 되었듯이 지금은 천상양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하는가..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사도신경에 보면 예비자들이 물려온 이유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 하나 믿을까?”
아니면 “이웃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천주교에 입교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언어, 치유의 은사가 있고, 병을 낫게 하고, 예언을 하고, 지혜가 출중해서...
저것은 저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은사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거저 받은 것이다!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움과 변화!
능력의 감탄인데, 그것이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 거저 받은 것!
그 원천!
그 원천을 따라가서 그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위가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그 힘은 바로 성령이었다.
자칫 우리는 조직의 힘, 세상의 힘, 돈의 힘, 브랜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현 교회는 잘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기도회 가면 지금도 심령기도를 많이 하고, 저도 하는데...할 때마다 식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경험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비 과학적인 것, 반 과학적인 것, 초 과학적인 것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복, 사제복이 있기 때문에 미사 전례 안에서 영영 울지 못하고, 펄쩍 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말 하느님 앞에서 흔들어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정결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커다란 은사로써 거듭나야 되는데, 너무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고백성사 볼 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완전한 성찰은 없지만, 그래도 성사 안에 들어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포도주가 성혈로 변하고, 성혈을 영한 우리가 성령의 커다란 은총을 받듯이... 또 성령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짓듯이... 다시 성사로서...
제목을 추가해야 되겠네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사가 된다.
성사적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성사 볼 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참 안타깝고...
왜 내가 알아내지 못하는가.....
왜 다 표현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은총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럴 땐 거저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는
공동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인성녀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일어났을 때 교

회가 하는 교육과 하는 지시사항은 침묵과 순명입니다.
강론을 하면서 이해가 좀 되는 것이.....
자신이 전하는 어떤 사도직이나 사제직이나 수도자로서 성화. 구원사업의 일 적인 측면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 나 자신을 설명하고 표현하려는 의지보다는 하느님 앞에 이것이 은총이라는..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 한마디 이것은 거저 받은 것이고, 이것은 흘러서 더 풍요로운 나눔이 되어야 한다는.....
부활절 미사 때 강론을 하는 것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서 진짜 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주신 두봉 주교님.....
가난하면서도 찾아가면, 당신이 식사를 차려주시는 모습이 오늘 영성체와 영성체 후 기도에 적합한 인간상의 생활상이었습니다.
반드시 펄쩍뛰어야되고 울고 그래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한번 정도는 무너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딱 한번 경험을 한 것 같은데, 30일 피정 때때 탕자의 비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묵상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물에서 포도주, 포도주에서 성혈, 성혈에서 성령, 성령에서 성사로.. 성사에서 공동선으로.....
공동선에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제목으로 바뀌겠습니다.
우리는 물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궁전임을 깨달아야 겠습니다.

허 윤석 신부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1월 구역모임 안내

- ▶브랜포드 29일 오후 7시 윤성호 형제덕
- ▶키치너 29일 오후 7시 소성당
- ▶캠브릿지 23일 6시 박용대 형제덕
- ▶워털루1구역 23일 6시 류무열 형제덕
- ▶워털루3구역 14일 6시 최동호 형제님덕
- ▶워털루4구역 30일 오후 6시 고영호 형제덕

◎ 축하드립니다.

오늘 미사 중에 감영규 형제의 세례성사가 있습니다. 이에 온 가족이 주님 안에 함께 하시게 됨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 사목회의 안내

오늘 주일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고원일 신부님 주관으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및 각 구역장, 단체장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헌금 증명서를 2월 중순께 배부 하려고 하오니 성명의 철자를 수정하실 교우분과 부부공동 성명을 원하시는 교우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적어 1월 31일까지 각 구역장님에게 제출바랍니다

- 구역명 - 성명(한글, 영문(대문자로 기입요))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7일과 24일은 안토니다니엘성당 행사관계로 친교 식사가 없습니다.

◎ 2010 년 울뜨레아 연례 쇄신평정 안내

- ▶일 시: 2010년 1월 29일(금) 부터 31일(주일)
-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 ▶참가비 : \$200.00 ▶문의: 울뜨레아 간사

◎ 기금마련 디너의 밤 안내

라이프센타 기금마련을 위해 스파게티 디너의 밤 행사를 합니다.

- ▶일 시 : 24일 주일 오후 6시 30분
- ▶비 용: \$15/adults \$610세 미만
- ▶협 찬 :Ennio's Italian Restaurant
- ▶문 의 : 이상희 세라피아 자매

좌석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오늘내로 예약하세요.

◎ 폐제의 밤 안내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와 폐제 음악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공동체를 위한 청원기도 안내

* 십자가의 길: 매 주일 오후 4시 15분 본당 (선도자 명단

- 1월 17일- 재정분과장 고영호 미카엘
- 1월 24일- 전례신심분과장 최희수 카타리나
- 1월 31일- 선교분과장 박재영 바오로)
- 2월 7일- 공동체분과장 박용대 바오로
- 2월 14일- 교육청소년분과장 노동원 라자로
- 2월 21일- 관리분과장 이명희 스테파노
- 2월 28일- 워터루 1 구역장 류무열 레오비노

* 묵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2009년 1월10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75.00
교 무 금 :	\$ 120.00 100(169) 20(179)
감 사 금 :	\$1875.00 20(105) 1855(익명)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 35 (\$5590.00)
합 계 :	\$ 2670.00

*** 헤이티 지진참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삶에게 성모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모두 기도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마알'이 됩니다.이를 풀이 하면 '마음의 알갱이'란 뜻이 됩니다.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옵니다.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입니다.반대로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쓰는 사람입니다.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그래서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거나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태익의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중에서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64 3533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10-03호

2010. 1. 17.

연중 제 2주일

해설 고영호

차주 해설 박명옥

성 가

입 당 (149) 어둠의 빛이신 성령

봉 헌 (220) 생활한 제물

성 체 (163) 생명의 성체여

퇴 장 (4) 찬양하라

화 답 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 차지하게 되었네.◎ 알렐루야

영성체후 묵상 카나의 혼인 잔치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선행에 충실한 것이 그분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사를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독 서

1월 17일

윤명원

윤명희

1월 24일

조성근

조현숙

봉 헌

1월 17일

김태석

김한순

1월 24일

윤명원

윤명희

복 사

1월 17일

구하람

노승범

1월 24일

구한힘

김건우

친 교

17일/24일 친교 식사는 없습니다.